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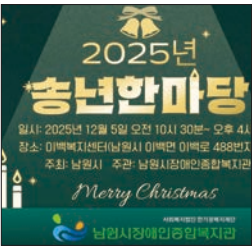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5일 송년하마당 개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은웅)이 오는 5일 오전, 이백복지센터에서 '2025년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하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복지관 종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 1부 기념식에서는 식전공연, 시상식 등과 후원자·자원봉사자·우수이용자·우수강사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이어 프로그램 영상 관람이 이어진다.

2부 성과발표회에서는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11개 팀의 발표와 공연이 펼쳐져,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행사에 앞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해 온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의 큰 힘"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채연길 부안 상서면장, 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 상서면 채연길 면장이 정년퇴직을 앞둔 12월 2일, 부안군군농인재육성재단에 배우자 최희원 씨와 함께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채면장은 1992년 6월 상서면사무소에 초임 발령을 받은 후, 33년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해 온 대표적인 생활행정가다. 올해 상서면장 임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을 믿어준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장학금 기탁을 결심했다. 이번 기탁은 부부의 이름으로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채면장은 "33년 동안 지역에서 받은 큰 사랑이 수박아라면, 자라나는 지역 후배들에게 콩 한쪽이라도 돌려주고 싶었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죽항동,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진행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와 남원중앙교회(담임목사 정종승)는 지난 2일 '2025 죽항동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한 취약계층 37가구에 연탄(1,000장)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남원중앙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을 기탁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탄을 지원받은 한 주민은 "도움을 받으니 큰 위로가 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초등 어울림 스포츠 교육 중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는 최근 무주상상반디쇼 지하 1층 대교육실에서 '어울림 스포츠트리드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종강했다.

어울림 스포츠트리드트레이닝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본 프로그램은 6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15회기로 진행되었으며,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청소년 15명이 참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향 무주 발전과 이웃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경무주군민회, 2025 송년회 개최... 장학금 600만원 기탁

2025년도 재경무주군민회(회장 김철호) 송년회가 3일 서울 신촌 '케이터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 군민들의 화합과 고향 무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재경무주군민회 임원 및 회원 등 3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몸은 떠나있어도 마음은 평생 고향에 두고 사시는 재경 무주군민 여러분 덕분에 무주는 오늘도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의 현실 속에서 마주한 지방소멸 위기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지역경제·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고향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가겠다"라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의 삶으로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재경무주군민회는 무주읍·설천면·안성면·무풍면·적상면·부남면 등 6개 읍면 중학교에 각각 장학금 100만 원씩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장학금은 각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총 2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부패조사단 선정, 환경봉 의원 4년 연속 '모범의정상' 수상

군산시의회 환경봉의원이 3일 군산부패조사단(단장 유영근)으로부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모범의정상을 받았다.

모범의정상은 시민단체인 군산부패조사단에서 지역 의정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환경봉 의원은 5년 의원의 경륜과 집행부 견제 및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아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9대 임기 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74건 최다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행정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23. 6월부터 '어쩌다 이런 일이' 시리즈로 5분 자유발언 주제를 이어 가고 있다. 매 회기마다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내 분석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민의 권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이번 수상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



다.

유영근 단장은 "환경봉 의원은 회기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지역과 시민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환경봉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노인회 무주군지회 어르신 자원봉사단 4개 팀, 봉사활동 마무리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운영하는 '어르신 자원봉사단 4개 팀(총 80명)'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매일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11월 활동을 끝으로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봉사단은 탄소중립 캠페인, 환경미화, 운동장 가꾸기 등 지역활동과 독거노인 보호 캠페인,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 등 재능나눔 봉사를 이어오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회장 이광부는 "매일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어르신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지역사회가 한층 더 따뜻해졌다"며 감사를 전했다.

지원자원봉사팀 단장인 박광우(69)씨는 "8개월 동안 매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20명의 우리 팀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점이 참 보람됩니다. 봉사를 실천하면서 저 자



신도 더 건강해지고 삶의 활력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는 내년도 활동을 함께할 신규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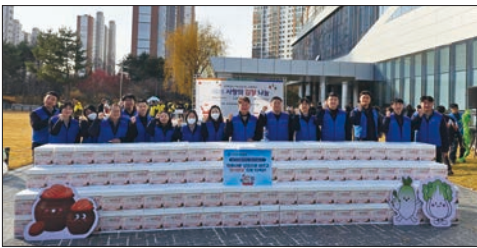
전, 익산시에 'JB희망의 공부방' 2곳 추가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역 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과 건강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은행은 3일 익산시 샘솟는지역아동센터와 정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6호·제217호' 오픈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샘솟는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정원이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되면서 이용 아동이 늘어났고, 이를 수용할 별도의 프로그램 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북은행은 이러한 필요에 맞춰 기벽 설치, 도배, 책상·의자 교체, 블라인드 설치 등 학습공간 전반을 새롭게 단장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게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다운지역아동센터 역시 낡고 제작각인 학습용 가구로 인해 단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익산=김자



전기안전공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김장 나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함께 11년째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잔디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장 나눔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례 사회공헌 행사다. 세 기관의 협력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으며 지역사회 대표 나눔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담긴 김치는 총 3.2t 규모로, 지역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 65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주거기설 개선 봉사활동에서 만난 국가보훈가구에도 이번 김치를 따로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익산=김자



전건협 전북도회,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은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전문건설회(회장 임근홍)에서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 임근홍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진안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전준성 이사장은 "잊지 않고 매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장학재단을 통한 관심과 사랑이 지역의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 장수군 취약계층에 성금 기탁

장수군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가 연말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겨울철 난방·생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탁은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용성로타리클럽, 필리핀서 봉사활동 나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남원용성로타리클럽(회장 허창근)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자매클럽인 국제로타리 3790지구 필리핀 마발라카클럽에서 지구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마발라카클럽 회원들과 마발라카시 사랑비바리스 초등학교를 방문해 100여명의 아이들에게 학습품과 미니선풍기를 전달하고, 밀가루 반죽부터 튀기는 공정을 거쳐 직접 손수 만든 빵과 파파기를 나눠주는 베이킹 봉사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협회 임실지부, 임실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대한한돈협회 임실지부의 돈독하고 두터운 나눔의 정이 임실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임실지부(지부장 김성두)는 지난 2일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임실군 애항중학교(이사장 심민)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성두 지부장을 비롯한 임실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연말의 온정을 더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임실지부는 2020년부터 이어진 정성 가득한 기탁금이 올해까지 총 4,400만 원에 달해, 지역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임실=전종영 기자